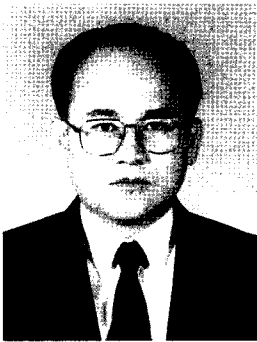


국제통상환경 현황과 시사점

1. 서론



河炳基

(산업연구원 河炳基 선임연구위원)

5년 전 지금쯤 한국인들의 관심은 온통 경제에 쏠려 있었다. 5년 후 새로운 대통령이 정권을 인수한 지금 강도는 차이가 있을 지언정 한국 경제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모아져 있다. 잘 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생활 수준의 악화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세계적인 위상이 80년대나 90년대보다 훨씬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향방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더욱 높아졌다. 1997년 말 닥친 외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고 정부가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경제위기를 논하고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외환 위기를 헤쳐나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개혁조치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원칙의 정립에는 미흡하다는 내부적인 요인을 우선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국제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국제환경 중에서 정치적인 요인이 현재의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북한 핵문제 등과 같은 국제 정치적인 현안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위축

■ 目 次 ■

1. 서론
2. 도화개발아젠다 협상과 국제규범
3. 국제경제력 구조의 변화
4. 심화되는 세계화
5. 시사점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바로 국제경제환경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제정치문제가 세계 경제를 압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는 일반적인 관심이 저조하다. 기실 국제통상환경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진행된다.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갑자기 느끼거나 인식하지만, 인식하는 시점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국제통상환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으나, 국제경제질서의 정립, 국제경제력 변화, 세계화의 진행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경제질서의 정립은 국제 규범의 제정을 통하여, 그리고 국제경제력의 변화는 시장과 공급자의 변화의 변화로, 그리고 세계화는 기업 및 국가의 행태 변화로 이어져 통상환경을 변화시킨다.

2.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국제규범

2002년부터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국제규범이 서서히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9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21세기 초반의 국제통상질서를 규정하는 규범을 제정하게 된다.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다자간 무역 협상의 이름에 개발이라는 단어를 부여하였다는 특성이 있다.

도하개발아젠다는 2001년 11월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출범이 공식화되었다.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WTO회원국 각료들이 출범을 공식화하려다가 협상 의제 및 내용을 둘러싸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한데다 시민단체들

의 반대도 거세어서 무산되기도 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개방에 대한 여러 이익단체의 반대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자간 협상이 개별국가 그리고 세계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상품, 서비스 그리고 여타의 국제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한다는 사실에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21세기 들어서면서 미국 경제를 위시한 세계경기가 후퇴하자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다자간 협상을 통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상은 2002년부터 3년 간 진행되어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하도록 각료회의 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다. 과거 다자간 협상의 예로 보아 2005년 1월 1일에 협상이 완료될지는 의문이다. 1993에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도 이해당사국간의 의견차이로 수차례 걸쳐 협상이 지연된 바가 있다.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한 이후 2년 반만에 겨우 다자간 협상이 출범하게 된 것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WTO라는 공식적인 기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협상이 과거와는 달리 더 효율적이고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다자간 협상의 파장은 벌써 오래전부터 국내 경제 및 이해집단간의 역학구조 속에 현실화되었다. 추곡 수매가 인상을 두고 벌어지는 계속되는 논란은 현재의 다자간 협상과 직결되어 있다. 양곡유통위원회가 다자간 협상의 결과에 대비하여 추곡수매가 인하를 건의하는 등 추곡수매가와 쌀 시장 개방을 둘

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감한 주제로 부각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수산물, 과일 등과 같은 일차산품 만이 아니라 노동계 등 제조업 생산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시장 개방에 관한 관심과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협상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분야에서 개방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제협상에서는 농업, 공산품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뿐만이 아니라 반덤핑 및 보조금의 규범 개정, 개도국 지원의 이행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의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검토를 거쳐 금년에 개최되는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의 경우 시장 개방의 확대,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국내 보조금의 실질적 감축 등의 3가지 협상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추곡 수매가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한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주제이다. 각종 농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불가피하여 외국 농산품이 그 만큼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품의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주요 내용이다. 일정 수준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품목의 수도 늘어날 것이다. 과거의 예로 보면, 과거에 약속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준으로 자동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 의류 등에 대한 높은 관세도 시정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류 수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들의 경우 공산품의 관세율이 0%에 접근하지만, 의류, 신발 등과 같이 자국의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20% 내외의 높은 관세를

〈 표 1 〉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의제

의 제	양허안 제출 및 특기사항
농업, 서비스 분쟁해결양해 비농산물 시장접근 TRIPS WTO규범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환경(무역장벽감축, MEA · WTO 정보교환)	5차각료회의(농업), 2003년 3월(서비스) 2003년 5월(개선 및 명료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이익 고려 TRIPS와 공중보건은 특별선언문 채택 규정을 명확화하고 개선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성 제고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 개시
전자상거래, 환경(CTE의제), 무역 · 부채 · 금융 소규모경제 등 개도국 관련사항	5차 각료회의 보고사항 검토 작업대상

자료: 최낙균, 2002년 국제통상환경 전망, 2001.11, 전경연 세미나자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국제협상에서 이러한 고관세의 시정이 협상 의제에 포함되어 왔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한 협상은 2000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다자간 협상에서는 협상 진행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 개방이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디지털 방송 시장이 이미 개방되었다는 보도를 둘러싼 논란은 국제협상과 관련한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간 체제를 설립하고자 협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인 표시와 관련한 실익이 크지 않아 비구속적인 성격의 등록제를 지지하고 있다.

금년에 협상 시작 여부를 결정할 투자, 경쟁 등의 주제는 새로운 이슈로 국제적인 규범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논란이 많은 분야이다. 향후 개시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현존 WTO 규정에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초보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이어서 각국의 정책을 크게 구속하는 정도는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도 정립되지 않았으므로써 협상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결국은 서비스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마련한 과거의 사례가 있다. 이로 미루어 예기치 않은 내용 및 분야로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에 개최된 국제 다자간 협상이 주로 공산품의 관세 인하를 다룬 데 비해 이번 라운드의 주제는 더욱 광범위하다는데서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국제무역규범은 상품, 서비스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직접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해당 국가의 고유 권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다른 국가의 검토 대상이 되거나 국제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점차 국가의 독립적인 권한이 축소되고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광범위한 의제로 출발한 도하개발아젠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의나 효과는 어떠한가?

일단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로서는 반덤핑규정의 개정, 관세인하 등으로 무역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 수출의 증가가 기대된다. 외국 상품의 가격이 인하되면 소비자도 이익을 누릴 것이다. 게다가, 국제무역 자유화로 세계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면 이는 또다시 우리 수출의 확대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일부부문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농업, 서비스산업 등과 같이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서는 벌써부터 타격이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시장의 개방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데다 보조금 등과 같이 국가의 지원책도 축소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협상이 종결되더라도 협상결과인 관세인하, 보조금 철폐 등의 조치가 3년 혹은 5년과 같이 일정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효과가 즉각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가와 같이 국제가격과 차이가 크거나 혹은 제도수정과 같이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면 그 효과는 협상타결 이전인 논의 과정에서도 사

회적인 파장이 확대될 것이 뻔하다.

농업, 서비스산업과 같이 부정적인 효과를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문이 있는가 하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같이 그 효과를 예상하기 힘든 부문도 있다. 특정 제품의 수입이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 등으로 수입되지 못하다가 협상의 결과로 수입이 가능한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당시 빗자루 등의 잡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멕시코산의 수입으로 도산에 직면한 사실을 호소한 예가 그것이다. 국가장벽으로 이익을 보고 있던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예이다. 역으로 수출하지 못하다가 수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다자간 협상의 이러한 효과는 기업 및 관련 산업의 부침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국가 경제에서 고용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새로운 사업이나 고임금 직종의 기회가 생기는 반면 실업의 가능성도 사실이다. 70년대나 80년대와 같이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대에는 이러한 조정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이제 저성장의 시대에는 경제나 개인에게 적지않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3. 국제경제력 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경제력 구조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중국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관한 소식은 우리나라의 경쟁상대로서 거의 매일 신문이나 방송의 주제로 채택될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다.

중국은 GDP가 2000년 현재 1조 8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G7에 중국을 포함시키고 다른 국가를 제외하여야 할 지도 모르겠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이미 세계 제2위의 경제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면 1997년에 이미 미국의 0.6배, 그리고 우리나라의 7배 수준에 달한다고 하니, 중국이 시장 규모 면에서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90년대에 들어와 빠르게 성장하여온 결과이다. 90년대 후반에 기록한 연평균 성장률 8.3%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외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달성한 것으로 중국의 성장잠재력이 어떠한가를 짐작하게 하는 수치이다. 중국의 대외무역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수출입 합계 5,098억 달러로 1990년의 16위에서 세

〈표 2〉 구매력평가 기준에 의한 중국의 GDP

단위 : 10억 달러

1997년	미국	중국	일본	한국
(구매력기준)	7,690	4,383	2,951	621
(환율기준)	8,318	882	4,316	477

자료 : 日本經濟研究 センター, 「2020年の中國」, 2000. 3. 신태용, 중국경제의 국제적 부상과 중장기 전망, 2001. 11.26에서 재인용.

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세계상위의 무역대국 중에서 수출입 모두 가장 높은 상승세로 수출입 공히 6위로 부상한 것이다. 중국은 소비시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공급자의 위치도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주변국가의 우려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과 이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으로 달려가고 있다. 중국은 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미국 다음으로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나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이 활발한 다국적 기업의 유입은 다른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을 저해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이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과 이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자국내 생산 활동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높여갈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경제 부상의 한 요인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경제 내에서 일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중국 산업의 부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어 2008년에는 GDP 규모가 세계 제4위로 부상할 것으로 미국의 전망전문기관인 WEFA가 예측하고 있다. 2008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발전기획위원회는 2010년에는 세계 제4위, 그리고 2020년에는 세계 제3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결국, 중국은 적어도 당분간은 현재의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세계 경제력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소비 시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상품의 공급 능력 면에서 모두 크게 성장함으로써

< 표 3 > 세계 주요국 GDP 전망

(단위 : 10억 달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중국	한국
2000년	9,825	4,767	1,869	1,307	1,073	1,438	1,080	461
2006년	14,466	5,341	2,985	2,010	1,779	2,256	2,586	825

자료 : WEFA-DRI, World Overview, December 2002

< 표 4 > 지역 협정의 추이

	1958 -1960	1961 -1970	1971 -1980	1981 -1990	1991 -2000	2001	2002	2003	전 기간
신규협정 수	3	3	15	10	124	11	11	2	179
누적협정 수	3	6	21	31	155	166	177	179	179

자료: www.wto.org

주: 1) 유효시점 기준임.

세계경제질서나 환경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WTO가입은 경제력에 더하여 국제기구나 협상테이블에서 중국의 입김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벌써부터 중국은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등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진국 위주로 진행되던 국제 협상에서 중국이라는 변수가 사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중국 경제력의 부상만이 세계 경제력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들이 자유무역지대(FTA)와 같은 지역협정을 통하여 경제통합을 기도하면서 국가 단위에서 나아가 지역단위의 통합된 경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역협정이란 WTO의 다자간 협정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소수의 국가가 참여하고 참여국 간의 경제행위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비참여국을 차별화하는 배타성을 지닌다. EU는 경제적인 지역협정이 발전하여 정치적인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다자간 협정이 다수의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혜택을 향유하는데 반해 지역협정에 소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U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대표적인 지역협정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지역협정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 현재까지 WTO에 통보된 지역협정 중 현재에도 유효한 협정이 179개에 달한다. 특히,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 매년 10개 이상의 협정이 통보됨으로써 대부분의 국가가 지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1958년 이후 1990년까지 WTO에 통보된 협정수가 불과 31개에 지나지 않았는데 반해 그 이후 13년간 148개나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국가들이 지역협정 체결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지난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도 지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도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등 지역협정의 바람이 아시아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하겠다.

지역협정의 숫자만이 아니라 지역협정이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나가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 EU는 로마조약 당시인 57년에는 프랑스를 비롯한 6개 회원국에 지나지 않았으나, 4차례에 걸친 확대과정을 거쳐 이제는 15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국가들의 가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유럽시장은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하게 된다. 2002년 유통화의 유통으로 기존 회원국의 통합이 가속화되는 데 더하여 규모자체도 확대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범미자유무역지대(FTAA)의 형성, 우리나라, 일본, 중국 및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 등 기존 지역협정의 통합 혹은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지는 형상을 띄고 있다고 하겠다.

지역협정의 확산이 미치는 효과나 의의는 어떠할까? 우선, 지역협정은 참여한 국가 간의 교역을 증진시킴으로서 참여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렇지만, 지역협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국가 및 그 국가의 기업은 거래 환경 및 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관세이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협정에 참가한 국가의 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거래의 배타적인 차별화가 야기되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현재 많은 국가들이 앞 다투어 지역협정 체결에 관여하거나 기존 협정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 호조건은 잦은 거래를 유발하고 이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교류와 연대를 유발함으로써 국제대형거래뿐만이 아닌 국제협상에서도 상호 협력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이는 다시 거래를 유발하는 선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협정은 개별 국가가 아닌 집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대표성을 가짐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EU의 경우 각국이 각각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EU집행위가 공동의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시킨다. 각종 국제무대에 EU 회원국은 물론 EU집행위가 참여하고 있다. EU라는 거대시장 및 경제력이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과거 미국과 유럽의 통상분쟁에서 개별국가가 아니라 EU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협정이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라 할 수 있다. 결국, 지역협정의 통합과 합산은 국제통상문제 해결과정에서 협상력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국제정치구조의 변화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련 붕괴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역학구조에서 EU의 부상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4. 심화되는 세계화

국제통상을 영위하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거꾸로 기업의 행태는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살펴본 새로운 국제규범의 제정도 기업의 요구나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기업 활동의 결과로 국가경제의 경제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세계화는 국제통상환경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세계화란 수출입, 기술이전, 자본 및

경영자원의 이동을 포함하는 직접투자 그리고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기업의 세계화 전략은 단순한 수출입에서 벗어나 직접투자나 전략적 제휴를 심화시키는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업 혹은 전략적 제휴기업과 관련하여 수출입을 영위하고 있다. 국제무역협상이 상품 수출입에서 서비스업으로, 관세 위주에서 국제규범, 투자규범, 경쟁 등으로 의제가 확대된 것은 기업 세계화의 단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업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모든 시장에서 모든 국가의 경쟁자들이 동시에 경쟁하게 되는 한 개의 시장화하는 현상이다. 특정 시장에서도 특정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모든 기업과 경쟁하거나 경쟁하게 될 잠재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기업은 가능한 모든 경쟁요소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유지하려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낙오되거나 퇴출당할 위험성에 처하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은 생산, 유통 등의 경영행위를 특정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을 경쟁과 협력의 대상으로 고려하여 구매, 생산, 판매 등의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특정 기업과 사업에 따라서는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등 경쟁과 협력이 상존하는 복잡한 기업간 관계를 형성된다. 또한, 지구촌화는 일몰일가의 법칙(한 상품의 가격은 하나임.)이 적용되는 세계시장의 단일시장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경이 더 이상 국내시장을 국제시장에서 분리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물론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세계화 현상은 국제 무역 및 투자가 자유화

〈표 5〉 세계 해외직접투자 관련 지수 추이

항 목	경상금액(10억 달러)			연평균 성장률(%)					
	1982	1990	2001	1986 -1990	1991 -1995	1996 -2000	1999	2000	2001
해외투자유입	59	203	735	23.6	20.0	40.1	56.3	37.1	-50.7
해외투자유입스톡	734	1,874	6,846	15.6	9.1	17.9	20.0	22.2	9.4
국제 M&A's	-	151	601	26.4	23.3	49.8	44.1	49.3	-47.5
자회사 매출	2,541	5,479	18,517	16.9	10.5	14.5	34.1	15.1	9.2
자회사 부가가치	594	1,423	3,495	18.8	6.7	12.9	15.2	12.9	8.3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2에서 발췌 인용.

되고 통신, 수송 등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자유화와 기술발전간의 시너지 효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통신 및 수송기기의 발달은 원거리 지역에서의 영업 및 생산을 더 낮은 비용으로 가능하게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협상과 지역협정은 거래에 관련된 국가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국제거래를 더욱 쉽게 한다. 시장의 통합과 이에 따른 경쟁의 동시성, 잠재적 경쟁자의 증가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화라는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 즉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형태인 해외직접투자는 유입기준으로 1982년의 590억 달러에서 2001년에는 7,35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평균 40.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등 21세기가 투자의 시대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해외투자유입의 스톡액은 2001년 현재 6조 8,000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총 GDP의 21%를 넘는 것

으로 추산된다. 다만, 2001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미국 테러사태의 후유증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해외직접투자가 50%이상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요인이 해소될 경우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판매한 액수는 2001년 말 현재 세계 전체 GDP의 58%에 달하는 18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모기업의 매출액을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의 이러한 확장세는 수출입보다도 훨씬 빠른 것으로 이제 세계경제에서 핵심적인 국경간 거래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양적인 증가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보다는 외국의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국제적인 기업인수 합병은 1990년에는 1,510억 달러에서 2001년에는 6,010억 달러로 4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전체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중 74%에서 82%로 커졌다.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이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보다 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력의 확장

에 더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증가,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성장이 지속됨으로써 세계 경제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기업의 세계화가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5. 시사점

점차 형태를 띄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 경제력 구조의 변화, 기업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야기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적인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은 각각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지역주의의 확대와 기업의 세계화는 각국 경제의 자유화와 국경 장벽의 완화를 통하여 국가간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이러한 현상을 규정지을 새로운 규범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게 된다. 그 결과가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출범이다. 또한, 지역주의의 확대는 지역협정에 속하지 않는 국가로 하여금 다자간 협정의 필요성을 강화시킨다. 기업은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다자간 협상이라는 기회를 통하여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금년에 투자, 경쟁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이다.

자유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규범과 지역주의의 확대는 기업 세계화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국가간 거래가 더욱 자유롭게 되면 그 만큼 기업의 세계화가 촉진되게 된다. 지역주의와 경제력 구조의 변화는 기업의 진출 구조를 변화시킨다. 커지는 시장에 더 많은 해외

직접투자와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미자유협정이나 EU 확대의 예에서 보듯이 기업은 진행 중인 협정이나 변화가 시행되기 이전에 전략을 수립, 시행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상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기업 및 정부는 정보 및 전문성을 축적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누차 강조하였듯이 통상환경의 변화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된 이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관심이나 대응은 효율적일 수가 없다. 다만,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특히, 다자간 협상의 내용이나 지역협정의 내용이 과거와는 범위 자체가 방대하고 복잡하여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다. 반면, 개별 사항들은 관련 기업의 영업활동 등에서는 영향을 크게 미친다. 결국 협상에 참여하는 정부의 정보 제공 기능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기관이 관련기업에 대해 계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사전에 대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맥주업계에 외국인 투자자가 진출하였고, WTO와는 주세와 관련하여 분쟁을 경험한 바 있어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충분한 경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류를 사용하는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나 경쟁업체와 외국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으로 경쟁구도가 갑자기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외국업체와의 제휴나 직접투자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중국 등과 같이 다소 문화적 거리감이 적은 시장부터 우선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마케팅전략이나 비용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중국 시장의 진출은 세계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중국 주류와의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다자간 협상에서 지적소유권과 관련하

여 진행되고 있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 제도는 우리나라의 주류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해관계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류산업이 장래 중국 등 아시아 각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Poetry is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 : it takes its origin from emotion recollected in tranquility

시란 강력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른 것이다. 그것은 고요한 가운데 회상 되는 감정에서부터 솟아난다.

- William Wordsworth -